

## 한·중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악녀(惡女)들의 연대(連帶)\*

이경미\*\*

### 【목 차】

1. 들어가며
2. 韓·中 고전문학 속 악녀들의 연대
  - 1) 연대의 동기
  - 2) 연대의 전개
  - 3) 연대의 결말
3. 나오며

### 【초록】

본고는 韓·中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악녀들의 연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당시 악녀들은 가부장제에 반기를 들고 ‘현모양처’, ‘열녀’라는 포장 속에 가려진 자신들의 ‘음욕’, ‘지위욕’, ‘독점욕’, ‘물욕’ 등을 가감 없이 드러낸 존재들이었다. 그리하여 ‘악녀’로 규정된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서로간의 연대(連帶)를 선택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일시적인 단순 가담형도 있었지만, 일부 여성들은 연대를 통하여 내재한 악이 증폭·확장되어 살인 등의 중범죄도 서슴지 않는 진정한 악녀로 재탄생하기도 하였다. 그 결말에서도 신분제의 한계로 일부 정처, 신분이 고귀한 여성들에는 처절한 반성을 통한 개과천선으로 용서가 주어지기도 하였지만, 가부장 사회는 대부분의 연대를 용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 혹독한 ‘가중처벌(加重處罰)’의 형틀을 덧씌우며 강력하고 처참한 결말로 응징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 구조적으로 악녀들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 신분 사회의 수많은 부산물(副產物)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여성들에만 순종과 희생을 강요한 비극의 결과였다.

【키워드】 악녀(惡女), 연대(連帶), 한·중(韓·中), 고전문학, 비교문학

\* 이 논문은 2022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Fronti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짐.

\*\* 이경미,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 (leejingmei@gdsu.dongseo.ac.kr)

## 1. 들어가며

韓·中 양국의 고전문학 속에 등장하는 악녀(惡女)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들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여염집 여인들을 악녀로 만들었던 ‘악(惡)’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아마도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Plotinus)의 말처럼 악(惡)은 원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전제로 할 때만 이해 가능한 개념일지도 모른다. 모든 시대의 악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당대의 가치가 ‘결여(缺如)’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시대의 악녀들은 적극적인 실체로 파악될 수 없고, 그 시대의 정형적인 가치가 결핍(缺乏)된 존재들로 분류된 사람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韓·中 고전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악녀들은 당시 사회의 주류에게만 유리하고 이들의 특권을 지탱시켜주는 ‘허울뿐인’ 주류가치에 반기를 들거나, ‘현모양처’ ‘열녀’라는 포장 속에 숨겨진, 자신들 속에 깊이 내재해 있던 ‘애욕’, ‘물욕’, ‘소유욕’, ‘지위욕’ 등을 가감 없이 드러낸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독일의 철학자 요한 고트프리트 폰 헤르더(J. G. von Herder)와 아르놀트 겔렌(A. Gehlen)이 지칭한 그 시대의 왜곡된 결핍 존재(Mängelwesen)임이 분명하다.

더불어 악녀들이 연대하게 된 것 또한 고대 가부장제의 주도권을 지고 있던 남성 문인들로부터 ‘악녀’로 규정된 그녀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연대(連帶)를 선택한 것이기에 ‘자구행위 (selbsthilfe, self-help)’나 다름없었다. 봉건제의 예리한 칼날에 의해 ‘한 사람’이 아닌 ‘반쪽’, ‘충만’이 아닌 ‘결핍’으로 판정된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깊은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다른 결핍자들과의 연대 외에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온전해 지려고 한 그녀들의 시도는 의외의 불의타(不意打)를 맞게 된다, 사회를 지탱하기에 필수적인 ‘연대’라는 좋은 단어가 ‘악녀들’과 연계되는 순간 ‘연좌(連坐, collective punishment)’라는 날카로운 멍에 걸릴 수밖에 없었고, 목소리의 증폭을 통해 그들의 요구가 사회에 울려 퍼질 것이라는 바람과는 달리 사회는 그들의 연대를 더욱 가중하고도 혹독한 ‘가중처벌(加重處罰)’의 형틀을 덧씌우며 처참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선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고전 문학 작품 속에서 종횡무진 활약했었던 악녀들에 대하여 학자들은 줄곧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주로 한국 혹은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 문학 작품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1)</sup> 이로 인하여

韓·中 양국 고전문학 속에서 비교,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나아가 작품 속에서 악녀들의 ‘협력’과 ‘연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韓·中 고전 문학 속 악녀들의 연대의 과정을 동기, 전개, 그리고 그 결말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연구대상이 되는 양국 작품들 간에 시대적 차이, 여성들 간의 신분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상호비교 분석으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한중 고전 문학 속 여성연구의 주제, 범위의 확장과 동시에 양국 문학작품 속 여성들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에 작은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악녀들의 연대가 중요한 모티브 혹은 소재가 되었던 한중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 양국을 대표하고 사랑받았던 작품들을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씨남정기』, 『옥루몽』, 『콩쥐팍쥐』를, 중국의 경우에는 『금병매(金瓶梅)』, 『수호전(水滸傳)』, 『유세명언(喻世明言)』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韓·中 고전문학 속 악녀들의 연대

### 1) 연대의 동기

악녀들이 연대하게 되는 동기는 여성의 측면에서는 본능적이지만, 남성들이 보기에는 반역적이었다. 남성중심의 봉건제하에서 효와 열의 가치에 억눌린 여성들의 가냘픈 외침은 삶의 근본적인 동기인 사랑, 애착, 소유였으나, 가부장사회의 입법자들이 써 내린 봉건제의 법전(法典)에는 음욕, 물욕, 지위욕으로 규정되었고, 그러한 왜곡된 억압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성들은 부득이 또 다른 결핍자들과 손을 잡고 있었다.

#### (1) 음욕(淫慾)

고대 봉건사회에서 효(孝)가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에게 부여되는 보편적인 가치

- 
- 1) 조현우, 「〈謝氏南征記〉의 惡女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문학여성연구』, 제13집, 2006. 김도환, 「〈옥루몽〉의 악녀서사」, 『우리문학연구』, 제47집, 2015. 김정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악녀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8. 차은경, 「고전소설에 나타난 악녀형 인물연구」,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2003. 송진영, 「〈열패전(孽嬖傳)〉을 통해 본 악녀 이미지」, 『중국어문학지』, 제9집, 2001. 이영숙, 「《列女傳》과 《世說新語》의 惡女 형상 小考」, 『中國文化研究』, 제18집, 2011. 등이 있다.

관이었다면, 열(烈)은 오로지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윤리 규범이었다.<sup>2)</sup> 남성의 축첩, 기루 출입 등은 고상한 풍류로 여겨졌지만, 여성의 ‘훼절’, ‘부정’은 가혹하게 규제되었고, 또한 참혹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지독한 악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부정(不貞)’이라는 죄명은 여성의 자존심과 명예뿐 아니라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악녀’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마저 주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악녀들이 연대하여 음욕을 추구하는 유형으로는 중국 성애 문학의 걸작이며 여성들의 육체적 욕망이 난무하는 명의 『금병매(金瓶梅)』의 반금련(潘金蓮)과 춘매(春梅)가 대표적 인물들이다.

먼저 중국 고전문학 사상 최고의 음부(淫婦), 요부(妖婦)로 일컬어지고 있는 반금련은 왕노파(王婆), 서문경과 결탁하여 남편 무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는 서문경의 집에 다섯 번째 첩으로 들어간다. ‘하룻밤도 남자가 없으면 지낼 수 없었던’ 반금련과 함께 음행(淫行)을 행하다가, 결국 과도한 음욕으로 복상사로 죽음을 맞게 되었던 여성은 바로 작품명 『금병매(金瓶梅)』의 ‘梅’에 해당하는 춘매(春梅)였다. 춘매는 원래 첫째 부인 오월랑(吳月娘)이 반금련에게 주어 시중들게 한 집 안의 하녀였다. 반금련은 춘매를 서문경의 여인이 되게 하고는 함께 의기투합하며 음행을 지속한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춘매는 기지를 발휘해서 서문경의 사위 진경제, 하인 금동과의 불륜이 들통 날 위기에서도 반금련을 여러 번 구해 준다. 심지어 반금련은 사위 진경제와의 추악한 불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녀 춘매로 하여금 진경제(陳經濟)와 동침하도록 한다.

“네가 만약 우리의 비밀을 지켜줄 양이면, 진사위가 여기 있을 때 제가 진사위와 한번 같이 자고 놀아야만 비로소 너를 믿겠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을 숨겨줄 마음이 없는 걸로 알 테야!”<sup>3)</sup>

반금련과 춘매는 여주인과 하녀라는 신분을 넘어 육체적 욕망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한층 견고한 악의 연대를 결성한다. 과도한 음욕과 춘약의 과다 복용으로 서문경이 세상을 뜨고, 평소 두 여성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본부인 오월랑에 의해서 팔려가는 신세에 처해서도 춘매는 반금련과 자신을 ‘일심동체’의 관계로 규정짓고 늘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2)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월인출판사, 2006, p.14.

3) “你若肯遮盖俺们，趁你姐夫在这里，你也过来和你姐夫睡一睡，我方信你。你若不肯，只是不可怜见俺每了。”(蘭陵笑笑生，戴鴻森 校点，『金瓶梅词话』，人民文學出版，1992.)

“마님과 저는 일심동체예요. 영감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지금부터는 마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를 것이며, 늘 함께 있을 겁니다.” 4)

춘매는 늙은 주수비(周守備)에게 16년에 팔려 가게 되지만 뜻밖에도 춘매가 주수비의 아들을 낳고 나서는 졸지에 부인 대접까지 받게 되자, 반금련을 데려오고자 주수비를 조르기까지 한다. 그러던 중 반금련이 무송에게 죽임을 당하자, 길가에 나뒹굴고 있는 반금련의 시체를 거두어 조용히 절에 안장하여 준다. 그러나 서문경 생전에 자신들의 음행을 고자질했던 네 번째 부인이었던 손설아에게는 잔혹한 복수를 자행한다. 일부러 손설아를 하녀로 사와서 심하게 매질하고 모욕을 주고는 급기야 최하급 사창가에 팔아 버리는 악행마저 저지른다.

이처럼 악녀들의 음욕은 자신들만의 불행으로 그치지 않고, 한 가정을 파괴해 버리고, 나아가 주위 사람들까지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무시무시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다.

## (2) 지위욕(地位慾)

가부장 사회의 처첩제도는 여성에게는 잔인한 인격 공격이었다. 본처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또한 남성의 사랑만이 모든 것이 담보되었던 첩에게도 자신들의 위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위태롭고 열악한 상황이었다. 특히 남편의 죽음 이후로는 아무런 지위와 보장을 받지 못했던 열악한 처지는 그녀들의 삶을 시시각각 압박하고 있었다. 신분 질서가 완고한 봉건사회에서 본처가 아닌 첩의 입장에서는 정치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악녀, 특히 악첩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갔으며, 또한 여럿이 힘을 합칠 때가 더욱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악첩들은 자신의 수족 같은 하녀, 재물에 눈이 먼 무당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혈연, 정, 그리고 물질의 약점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그들을 다루어 이용할 줄 알았고, 신분, 금전, 욕정의 욕망으로 서로 결탁, 연대하여 본처 축출, 남편 제거로도 모자라 친자 살해까지 저지른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여성들은 한국 고전문학사에서 최고의 악녀들로 손꼽히는 서포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의 첩 교씨와 그녀의 하녀 납매, 무녀 십랑이다. 교씨는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공후 부귀가의 첩이 되어서라도 부귀영화를

4) “你和我是一個人，爺又沒了，你明日往后進，我情應跟娘去，自兩個還在一處。”(蘭陵笑笑生，戴鴻森校点，『金瓶梅词话』，人民文學出版社，1992.)

누리고 싶었던’ 지극히 현실적인 여성이었다. 자신의 하녀 납매와 공모하여 장안의 무녀 십랑을 불러들여 배 속의 여아를 ‘기묘한 부적과 기괴한 비방’으로 사내아리로 출산하게 한다. 그러나 본처 사씨 부인이 임신하자 납매를 시켜 독극물로 낙태시키려 하다가 실패한다. 이후 사씨 부인이 아들을 출산하자, 다시 십랑을 불러들여 사씨 부인과 그의 아들 인아마저도 없앨 흥계를 꾸미도록 한다.

“십랑은 곧 요물을 만들어서 서면에 묻고 교씨의 심복 시비인 납매를 시켜서 이리 이리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런 간악한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교씨, 십랑, 시비 납매의 세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sup>5)</sup>

후에 교씨, 하녀 납매, 무녀 십랑의 죄명은 후에 유연수가 교씨를 치죄하는 죄의 종목에서 드러나고 있다.

“음란한 것! 네가 네 죄를 아느냐? …… 이십랑과 더불어 요망한 술수를 부려 장부를 손안에 놓고 회통했다. 그것이 두 번째 죄다. 음란한 종년을 부려 동청과 간통하고 한 마음이 되었다. 그것이 세 번째 죄다. ……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sup>6)</sup>

교씨는 결국 본처 사씨를 모함하여 쫓아내고, 정처 자리를 획득 후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더한 부귀영화의 추구하고 노골적인 성의 탐닉으로의 모습까지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악녀들의 연대는 모녀간의 관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악한 계모와 딸이 착한 전처 자식을 학대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전처 자식의 행복을 가로채려고 한다. 조선의 민화 『콩쥐팍쥐』의 계모 배씨는 ‘천성이 요악 간특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딸 팍쥐는 전설 소생 콩쥐에 비해 용모도 떨어지고 됃됨이도 변변치 못하였다. 콩쥐에 대한 극심한 시기심은 학대로 이어져, 콩쥐에게 나무 호미를 주어 산비탈 돌밭을 매게 하거나, 밭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게 하는 등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주어 콩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준다. 그러나 선녀의 도움으로 콩쥐가 감사(監司)와 결혼하게 되자, 이들은 콩쥐를 살해하고, 감사의 아내 자리마저 차지하려고 한다. 눈엣가시 같은 전처 자식 콩쥐를 죽이고, 자신의 딸 팍쥐가 감사와 결혼하여 자신도 부귀영화를 누리하고자 한다. 팍쥐가 콩쥐를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에 가고자 할 때 배씨는 팍쥐의 살인 계획을 말리기는커녕 매우 기뻐하며 딸 팍쥐의 악행을 더욱 부추기기까지 한다.

5) 김만중, 류준경 옮김,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p.46.

6) 김만중, 류준경 옮김,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p.154.

“팔쥐 어미는 팔쥐가 흥계를 품고 궁쥐를 해치려고 들어갈 적에 매우 기뻐하여 ‘만반 조심하여 아무쪼록 성사하라’고 부탁하여 보낸다.”<sup>7)</sup>

이윽고 팔쥐는 연꽃 구경을 가자고 궁쥐를 유인하여 연못에 밀어 넣어 죽이고 만다. 자기 자식 팔쥐에 대한 모성본능에서 시작한 계모 배씨의 열등감은 천성적으로 간악한 자신의 본성과 또한 자신을 꼭 닮은 팔쥐의 탐심과 결합되어 드디어 살인으로까지 확대되고 만 것이다.<sup>8)</sup>

### (3) 독점욕(獨占慾) : 질투(嫉妬)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부정(不貞)’과 더불어 최고의 악덕 중 하나로 지칭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질투(嫉妬)’였다. 이러한 가치관은 한중 고전 문학작품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중 남성 작가들은 여성의 질투를 강력한 ‘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남영로의 『옥루몽』에서는 선관(仙官) 문창성이 지상을 그리워하고, 다섯 선녀와 서로 희롱하다가, 인간 세상으로 귀양살이를 와서 각각 양창곡과 강남홍, 황소저, 벽성선 등의 2처 5첩으로 환생한다. 이어서 양창곡과 선녀들은 차례로 가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이다. 여서들 중 뛰어난 미모에 탁월한 비파와 피리 실력으로 음악에 정통한 벽성선은 천자마저도 설득해 정치를 바로잡았던 능력 있는 여성이었다. 더욱이 10년간 청루에서 기녀로 지냈지만 처녀성을 지킨 지조 있는 여인이었다. 양창곡에게 벽성선은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존경해 마지않는 여인이었다. 그러한 벽성선을 향한 황소저의 질투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양창곡의 정처이며, 명문 세도가의 딸로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분인 황소저는 ‘천한 기생과는 이 세상을 함께 살지 않겠다’라는 질투심과 독점욕이 강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모친 위씨는 황족 집안으로 사위 양창곡의 집 안을 우습게 여길 뿐 아니라, 남편을 조롱하거나 질책하는 것은 예사이며, 황태후의 질책에도 지지 않고 받아치기 일쑤였다. 그로 인하여 황태후마저도 그녀의 ‘婦德이 모자람’을 애석해 하고 있었다. 황소저, 모친 위씨는 하녀 춘월을 교사해 적극적으로 음모를 꾸민다.

7) 한국고전문학편집위원회 편, 『궁궐팔쥐』, 회망출판사, 1978. p.277.

8) 김정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악녀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8, p.34.

“너는 황소저의 심복이다. 생사가 달린 어려운 때에 어찌 지나가는 사람처럼 이 일을 본단 말이나? ... 네 어찌 묘책을 내지 않느냐?” ... 위부인이 춘월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뿌리까지 뽑을 수 있겠느냐? 9)

하녀 춘월도 본시 악한 성품이라 벽성선을 질투하며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황소저, 모친 위씨, 그리고 하녀 춘월은 정절 모함과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음해를 넘어서 드디어 자객 노랑까지 끌어들여 벽성선을 살해하고자 시도한다.

“속담에도 풀을 벨 때는 뿌리도 없애라고 했습니다. ... 지금의 풍파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벽성선을 살려 두었기 때문이옵니다. ... 천비(賤婢)가 온 장안을 돌아다녀서라도 섭정(攝政)처럼 날카로운 칼날을 계획해 보겠습니다.”<sup>10)</sup>

정치의 첩에 대한 질투심과 왜곡된 모성애에 하녀의 기형적 충성심까지 더해진 악의 연대는 ‘살인’이라는 무서운 범죄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 (4) 물욕(物慾)과 음욕(淫慾)

이 유형은 젊은 여성의 성적 욕망과 늙은 여성의 재물 추구라는 각자의 목표가 명확한 악녀들의 연대이다. 젊은 여주인공들이 성적(性的)으로 일탈하게 되고, 주변의 늙은 여성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녀들을 건잡을 수 없는 욕정의 세계로 이끄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여성들로 명의 풍몽령의 『유세명언(喻世明言)』의 「장흥가가 진주적삼을 다시 찾다 (蔣興哥重會珍珠衫)」에서의 설노파와 삼교아(三巧兒)가 있었다. 진주를 파는 설노파는 오랜 기간 남편의 부재로 인하여 외로워하던 삼교아를 꼬여 외도의 길을 걷게 한다. 여염집 여성을 간교로 불륜에 빠지게 하는 설노파는 악녀로 단정할 수 있으나, 삼교아를 악녀로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유부녀가 남편 몰래 외간 남자와 관계를 가지게 되고,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나 점점 대담한 애정 행위를 벌이다가, 자신의 이러한 불륜행위에 자신의 하녀 청운(晴云), 난설(暖雪)마저 끌어들인다, 두 하녀도 여주인의 불륜을 묵인, 방조했다는 점에서 함께 악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요사스러운 할멈, 젊은 처자들 이 사람 저 사람 바람 들게 하는 구나’라는 소개와 함께 작품에 등장하

9) 남영로, 김풍기 옮김, 『옥루몽』1, 엑스북스, 2020, p.469.

10) 남영로, 김풍기 옮김, 『옥루몽』1, 엑스북스, 2020, p.470.



여, 삼교아를 불륜으로 이끄는 여성은 마을에서 진주를 파는 ‘요사스러운’ 설노파였다. 설노파는 삼교아에게 반한 진대랑(陳大郎)을 그녀와 이어주기 위해 삼교아의 하녀 청운과 난설에게도 접근하여 옷이나 먹을 것을 주고 매수하여, 진대랑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리고 술과 음란한 이야기로 오랜 외로움에 빠진 삼교아의 춘정을 일으키게 한다. 뛰어난 입담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파고들어, 가장 본능적인 욕망을 선동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줌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악녀의 모습이였다.<sup>11)</sup> 과거 자신이 혼인 전 다른 남자와 사통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륜 행위를 정당화, 보편화시켜 삼교아의 도덕심의 벽마저 허문다. 악녀의 전형적인 특징인 사람의 본능적 욕망, 약점을 건드려 기존의 도덕 가치를 일시에 말살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sup>12)</sup> 이윽고 술에 취한 삼교아를 속여서 진대랑과 육체적 관계를 맺게 하고는 교묘한 말로 설득한다.

“내가 주제넘은 일을 저지른 것만은 아니죠. 마님이 독수공방하는 게 몹시 딱하기도 하고, 진대랑의 생명도 살려 주는 셈 치고 이을 벌인 것이지요, 마님과 진대랑은 틀림없이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이리 된 것이지 이 할망구가 나서서 된 것은 아니에요. ... 이 일은 청운하고 난설이 입만 잘 단속하면 누가 알겠어요? 이 할망구가 그저 마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한 것이니 나중에라도 잊지나 마세요.”<sup>13)</sup>

설노파의 꾀변에 넘어간 삼교아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와의 관계를 이어간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 정이 들자 눈물 흘리며 집 안의 가보인 진주삼마저 이별의 선물로 주는 대범한 애정행각마저 벌인다.

그리고 『금병매(金瓶梅)』의 반금련潘金蓮과 왕노파(王婆)의 연대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왕노파는 마을에서 매파, 산파 등으로 살아가는 천한 여성이었다. 작품은 왕노파를 ‘본분을 지키는 여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그녀를 소개하고, ‘남의 집에 분란만 만드느’ 악한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적당히 바람을 불어넣어 달의 선녀인 항아(嫦娥)가 사내를 유혹하게 한다. .... 노파는 숨씨가 하도 뛰어나 늘 남의 집에 분란만 만들어놓는다.”<sup>14)</sup>

11) 許璩梓, 「明代《三言》小說中的“三姑六婆”形象探究」, 『淮南師範學院學報』, 第64期, 2010, p.26.

12) 송용인, 「중국 고전소설 속의 “삼고육파(三姑六婆)”」, 『중국문학연구』, 제34집, 한국중문학회, 2007.06, p.62.

13) “不是老身大膽，一來可憐大娘青春獨宿，二來要救陳郎性命。你兩個也是宿世姻緣，非千老身之事。……此事你知我知，只買定了暗雲、暖雪兩個丫頭，不許他多嘴，再有誰人漏泄？在老身上下，管成你夜夜歡娛，一些事也沒有。只是日後不要忘記了老身。”(馮夢龍, 『喻世明言』, 北方文藝出版社, 2016.)

14) “送暖偷寒，調弄嫦娥偷漢子。……這婆子端的慣調風月巧排，常在公門操鬥毆。”(蘭陵笑笑生, 戴鴻森 校点, 『金瓶梅词話』, 人民文學出版社, 1992.)

본시 음심(淫心)이 있어서 시동생 무송(武松)에게 거절당하여 실의에 찬 반금련과 ‘남의 집에 분란만 일으키는’ 왕노파는 서문경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고, 의기투합하여 중국 고전문학사에서 가장 추악한 악의 연대를 만들어 낸다. 서로에게 추파를 보내는 반금련과 서문경의 마음을 간파한 왕노파가 “잘 맞았어요!”라고 음흉한 웃음으로 말을 건네며 악의 연대와 비극은 시작된다. 왕노파는 먼저 서문경의 자존심과 경쟁심을 부추기고, 자신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 반금련의 음욕과 왕노파의 물욕이 결합하여 만든 강력한 악의 연대였다.

이 유형의 모녀의 모습으로는 명의 4대기서 중 하나인 시내암(施耐庵)의 수호전(水滸傳)의 염파석(閻婆惜)과 그녀의 모친 염노파가 있다. 노래로 생계를 이어 나갔던 창기 출신의 염파석은 부친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을 팔게 되는데, 이를 기특하게 여긴 송강(宋江)이 장례비용을 마련해 준다. 이에 염노파는 송강을 ‘자신들의 밥줄’로 생각하고는 딸 염파석을 그의 첩실로 보낸다. 두 모녀는 송강이 얻어 준 이층집에서 ‘구슬과 비취로 머리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능라금수(綾羅錦繡)로 몸을 감싸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염파석은 곧 젊은 장문달(張文遠)과 사통하고, 그와의 결합을 꿈꾸게 된다. 그러던 차 송강이 가지고 있던 조개(晁蓋)의 편지를 발견하고는 이를 기회라 여기고는 그를 협박하자, 송강은 엉겁결에 그녀를 죽이고 만다. 염노파는 송강(宋江)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 ‘교묘한 말재주’로 송강을 염파석 곁에 억지로 잡아 두다가, 결국 딸 염파석이 송강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만들고 만다. 염노파의 ‘교묘한 말재주’, ‘탐심(貪心)’, ‘후안무치(厚顏無恥)’함이 딸 염파석의 음란함과 결합하여 비극이 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녀들의 연대의 동기가 비록 단순한 본능에서 비롯되었지만 막상 맞잡은 두 손으로 자신들의 ‘주제를 넘어서는’ 순간 이러한 폭발적인 동기의 힘은 향후 새로운 전개를 향해 폭주하고 있었다.

## 2) 연대의 전개

연대의 동기가 비약적으로 표동(表動)하는 순간, 악녀는 새로운 가담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난 공범들과의 조우와 공감으로 인해 각자의 내면적 동기는 외면화 되고, 주저하는 동기는 더욱 강화되고, 감추었던 의도는 보다 명확해지게 되었다.

### (1) 단순 가담형

명의 풍몽룡(馮夢龍)의 『유세명언(喻世明言)』의 「장흥가가 진주 적삼을 다시 찾다(蔣興哥重會珍珠衫)」에서 삼교아는 남편의 장기간 부재로 인한 외로움과 설노파의 간계로 불륜에 빠지고는 처음에는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내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고, 설노파와 하녀들의 비호로 진대랑과의 불륜 행각은 ‘밤마다 만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점점 대담해진다. 진대랑의 은자에 매수된 설파와 하녀들은 진대랑을 친절히 맞이하고, 망도 봐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까지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남녀의 밀애는 더욱 자유스러워지고 대범해진다.<sup>15)</sup>

『사씨남정기』의 악첩 교씨는 남편 유한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하녀 납매를 시켜 방술에 능한 무녀 이십랑을 매수하여 배 속의 딸을 아들로 바꾸게 하여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하게 한다. 납매는 본처 사씨를 모함하여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주인 교씨에 적극 협력한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설매마저 꼬시어 자신들의 악행에 가담하도록 한다. 설매는 사씨 부인의 옥가락지를 훔쳐내고, 냉진에게 그 가락지를 주어 사씨가 냉진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어 집에서 쫓아내고 만다.

이러한 단순 가담형의 악녀들의 연대는 주로 여주인과 하녀의 관계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는 당시 하녀들은 여주인의 수족과 같은 존재로, 주인의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았었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하는 대상이었으며, 심지어 그 행위가 선행이든 악행이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협력하여야 하였다. 악녀들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버려지기도 하였고, 때로는 자신의 주인을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였다. 「장흥가가 진주 적삼을 다시 찾다(蔣興哥重會珍珠衫)」의 청운과 난설처럼 자신의 주인인 삼교아의 불륜에 대한 방조, 협력한 처벌로 다른 곳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사씨남정기』의 설매처럼 자결로 속죄하거나 또는 납매처럼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그러나 더욱 악한 여주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어이없는 결말마저 맞기도 하였다. 비록 악녀들의 추악한 연대였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여주인을 만나는가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당시 하녀들의 아픔도 일부 담겨져 있었다.

## (2) 증폭·확대형

본시 음심, 탐심 등으로 악녀의 기질이 있었던 여성이 다른 악녀와의 조우, 연대로 인하여 내재되어 있던 악한 본성이 증폭 확대되어, 진정한 악녀의 길을 걷게 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을 증폭·확대형으로 보고, 대표적인 여성들로는 『금병매(金瓶梅)』

15) 김선미, 「『三言』, 『二拍』의 婢女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9, p.53.

의 반금련(潘金蓮)과 왕노파(王婆)가 있다.

천하의 반금련도 서문경의 유혹에 처음부터 선뜻 응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문경이 왕노파를 찾아 와 재차 도움을 요청하자, 교활한 왕노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차례 뇌물을 뜯어내며 그들의 불륜을 성사시킨다. ‘백하포로 만든 저고리를 입고, 연분홍빛 치마와 남색 조끼를 걸치고, 방 안에서 옷을 짓고 있던’ 평범한 아낙네 반금련에게 자신의 수의를 만들어 달라는 핑계로 서문경이 와 있는 자기 집으로 부른다. 그리고 왕파는 문을 잠그고, 밧줄까지 동여매어 두 사람을 집 안에 가두어 놓고, 불륜을 조장하기에 이른다. 나아가 그들의 불륜이 들키지 않도록 길 맞은편에 앉아서 동정을 살피기까지 한다. 그러나 마을 소년 운가에 의해 무대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고, 분노한 무대가 왕파의 집을 급습하게 되어 결국 둘의 불륜의 현장이 발각되고 만다. 그러자 반금련에게 무대를 살해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서문경이 가져다준 독약으로 무대를 독살하게 한다. 살인을 저지르고 손발이 떨려 당황하는 금련을 도와 극심한 고통으로 ‘이빨을 꼭 깨물고 일곱 구멍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처참한 무대의 시체를 말끔하고 능수능란하게 처리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 왕파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통에 물을 붓고 수건을 담가 위층으로 들고 올라갔다. 이불을 걷어내고는 먼저 무대의 입 언저리와 입술을 말끔하게 닦은 후 일곱 구멍에서 흘러나온 혈흔을 깨끗이 닦아내고는 옷을 몸 위에 덮어 입혔다.”<sup>16)</sup>

남편 무대를 독살하고 무서워서 뒤처리를 못 하는 금련과 달리 무서우리만큼 침착한 왕노파의 행동은 악의 화신이었다. 반금련과 서문경의 음욕이 참극을 야기시켰지만, 살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악(惡)을 저지름으로 본격적인 악녀의 길을 걷게 인도한 이는 바로 왕노파였다.<sup>17)</sup> 반금련에게 내재해 있었던 악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도해 나갔으며, 이후로 반금련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진정한 악녀가 되고 만 것이다.<sup>18)</sup> 이전의 수수한 아낙네의 모습에서 화려한 장식과 진한 화장으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고,<sup>19)</sup> 남편 무대의 상중(喪中)에도 몸치장 하고 음행을 저지른

16) “王婆道：‘有甚麼難處，我幫你便了。’那婆子便把衣袖捲起，舀了一桶湯，把抹布撒在裡面，掇上樓來。捲過了被，先把武大口邊脣上都抹了，却把七竅淤血痕跡拭淨，便把衣裳蓋在身上。”(蘭陵笑笑生，戴鴻森 校點，『金瓶梅詞話』，人民文學出版社，1992.)

17) 徐長偉，「論《金瓶梅》中的“王婆”形象」，『隴東學院學報』，第18卷 第4期，2007，p.22

18) 김재민，「『金瓶梅(金瓶梅)』속 왕파(王婆)와 대안(玳安)의 인물 분석」，『中國文化研究』，제43집，중국문화연구학회，2019.02，p.222.

19) “기러기가 갈대꽃을 물고 있는, 무늬가 있는 잿빛 노주산 비단 저고리에 흰색 목도리를 두르고 옷깃에는 꽃 모양 장식을 달고 있었는데 벌이 꽃에서 놀고 있는 모양이었다. 치마에는 폭이 한 자쯤 되는 해마에 파도와 구름무늬가 있고, 치마 끝단에는 양피가죽과 금색 실로 수를 놓았

다.<sup>20)</sup> 서문경의 집에 첩으로 들어가서도 그녀의 음행과 악행은 멈추지 않고 더욱 증폭된다. 반금련은 사위인 진경제와도 육체관계를 맺고, 자신의 추행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녀 춘매에게도 그와 관계를 가지도록 명령한다. 또한 몰래 고양이를 훈련시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이병아(李瓶兒)의 어린 아들 관가(官哥)마저 죽게 하는 간접 살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조선 후기 남영로의 『옥루몽』에서도 양창군의 정처인 황소저와 그녀의 모친 위씨는 기생 출신의 첩 벽성선을 질투하며 모해하지만, 차마 죽일 생각까지는 못 하고 있었다. 그러나 황소저의 하녀 춘월은 자객을 시켜서 벽성선을 살해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들의 악행에 분노한 험객 노랑(老娘)은 춘월의 귀와 코를 베어 버린다. ‘칼자국이 남자한 추한 얼굴’로 변한 춘월은 모든 분노를 벽성선에게 돌리고, 전면적으로 나서 악행을 진두지휘하기에 이른다.

“옛날 벽성선은 소저의 적이었지만, 오늘의 벽성선은 춘월의 원수입니다. 내가 결단코 이 원수를 갚으리니, 뒷일은 구경만 하십시오.”<sup>21)</sup>

춘월의 신체적·외적인 추함은 정신적 추함으로까지 확대되어 그녀의 악행은 더욱 대담해진다. 주인의 적이 자신의 적으로 변모한 왜곡된 충성심에 자신의 복수심마저 결합되어 어느새 절대악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만 것이다.<sup>22)</sup> 나아가 춘월의 악행은 벽성선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주인에게까지도 확장된다. 벽성선이 살해당한 것으로 꾸며 재물로 후하게 보상해 주지 않으면 기밀이 새어나갈 것이라며 황소저와 모친 위씨를 교활하게 협박하는 험잡꾼의 모습마저 보인다.

“이는 저와 춘성과 우격의 공이오니, 부인과 소저께서는 무엇으로 상을 내리시겠습니까? 만약 재물을 후하게 내놓아 그 입을 막지 않으신다면 큰 일이 누설될 것이고, 무슨 후환이 있을지 두렵군요.”<sup>23)</sup>

이제 악녀들의 연대는 단순방조(傍助)에서 교사(敎唆)로, 모의(謀議)에서 기능적 행

고, 붉은 술이 뽀족한 신발, 화려한 무릎 보호대, 푸른색 귀고리에 구슬로 만든 머리띠를 하고 나왔다.”(“只見潘金蓮上穿了香色潞紬雁啣蘆花樣對衿襖兒, 白綾豎領, 粧花眉子, 溜金蜂趕菊鈕扣兒; 下着一尺寬海馬潮雲羊皮金沿邊挑線裙子, 大紅段子白綾高底鞋, 粧花膝褲, 青寶石墜子.”, 『金瓶梅詞話』上, p.158.)

20) “매일 같이 길게 화장하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서문경과 재미를 보았다.”(“每日只是濃粧豔抹, 穿顏色衣服, 打扮嬌樣, 陪伴西門慶做一處, 作歡頑耍.”, 『金瓶梅詞話』上, p.63.)

21) 남영로, 김풍기 옮김, 『옥루몽』1, 엑스북스, 2020. p.497.

22) 김도환, 「〈옥루몽〉의 악녀 서사」, 『우리문학연구』, 제47집, 우리문학회, 2015, 07, pp.49-51.

23) 남영로, 김풍기 옮김, 『옥루몽』2, 엑스북스, 2020. p.21.

위지배로 진행하게 된다. 악행을 위한 공동의사형성과 실행행위의 분담은 그들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연대의 강한 밋줄은 끊어질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으로 결말을 향하게 된다.

### 3) 연대의 결말

봉건 사회 내에서의 악녀들의 연대는 태생적으로 불능범(不能犯)으로 그칠 수 밖에 없는 운명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악녀들의 연대에는 가혹한 응징과 처절한 해체가 기다리고 있었고, 비참하게 찢겨진 그녀들에게는 - 스스로 처절히 반성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가부장사회의 냉정한 판결문이 낭독되고 있었다.

#### (1) 응징형

『금병매』에서 음약(淫藥) 과다복용으로 서문경이 죽은 후에, 반금련은 자신을 악으로 이끈 왕노파와의 악연은 다시 이어진다. 본부인 오월랑에게 쫓겨 난 반금련은 왕노파의 집에서 팔려 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시동생 무송에게 무자비하게 ‘참수’당하여 자신이 독살했던 무대랑의 영전에 올려지는 신세가 되고 만다.

“무송은 칼을 입에 물고 두 손으로 금련의 가슴을 벌리고 찍하는 소리와 함께 심장과 간장 등 오장을 모두 끄집어내니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무송은 피가 떨어지는 채로 그것들을 영전에 올려놓았다. 그런 뒤에 다시 한 칼에 금련의 머리를 베어 버리니 바닥에 피가 흥건해졌다.”<sup>24)</sup>

반금련은 자신의 ‘악행’에 대한 응징으로 짐승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왕노파도 그 옆에서 무송에게 목을 베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sup>25)</sup> 여성의 부정(不貞)은 ‘짐승’처럼 추하고, 결말 또한 그에 맞는 ‘짐승’ 같은 처참한 죽음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가부장사회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금련의 하녀 춘매도 서문경의 사위인 진경제(陳經濟)와의 불륜, 집 안의 노복의 19세 아들 주의(周儀)를 유혹하는 등의 지나친 음욕(淫慾)의 결과로 복상사로 죽고 만다. 가부장 사회가

24) “武松口噙着刀子，雙手去斡開他胸脯。撲挖的一聲，把心肝五臟生扯下來，血瀝瀝供養在靈前。後方一刀割下頭來，血流滿地。”(蘭陵笑笑生，戴鴻森校點，『金瓶梅詞話』，人民文學出版社，1992.)

25) 滿建利，「論《水滸傳》老年女性形象塑造」，『鎮江高專學報』，第33期，2020. p.23.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음행, 살인의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은 시동생에게 참수당하여 남편 영전에 바쳐지거나 복상사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이다.

『콩쥐팍쥐』의 팍쥐 모녀도 예외는 아니었다. 팍쥐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원혼의 모습으로 나타난 콩쥐는 감사에게 자초지종을 알리고, 감사는 연못의 물을 퍼내어,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콩쥐를 구해 낸다. 그리고 팍쥐를 능지처참시켜, 젖으로 담아 항아리에 넣어 모친 배씨에게 보낸다. 이에 배씨는 충격을 받고는 기절하여 그대로 죽고 만다.

“흉한 피로 사람을 속이는 자는 누구든지 이처럼 젖으로 담그고, 딸을 가르쳐 흉하고 독한 일을 실행한 자는 그 고기를 씹어 보게 하노라. … 팍쥐 어미는 기절한 채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고 풍도지옥으로 모녀가 서로 손을 이끌고 가 버리느라.”<sup>26)</sup>

이처럼 악한 계모와 딸이 연합하여 전처 자식을 구박하고 살해한 죄악은 젓갈과 같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며, 결국 지옥으로 향하는 추악한 중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팍쥐는 몸이 찢겨지고, 계모는 딸의 처참한 죽음을 목도하는 형벌을 받고, 죽어서도 살을 에는 차가운 바람으로 갈기갈기 찢는 ‘풍도지옥’으로 가는 벌을 함께 받게 된다. 콩쥐와 자신을 도와주는 동물들, 선녀간의 선한 연대의 대단원과는 대조적으로 계모와 팍쥐의 악의 연대는 결국 ‘풍도지옥으로 서로 손을 이끌고 가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만 것이다.

봉건사회는 이러한 악녀들의 연대에 대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 나아가 가부장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처벌로 응징하고 있다. 이러한 악녀들의 연대의 처참한 결말의 모습을 통해서 악녀들은 자신들도 파괴되지만, 자신이 속한 가정도 망치고, 나아가 가부장 체제마저도 흔들 수 있다는 교훈을 여성들에게 지속해서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 (2) 해체형

### 가. 강제적 해체형 : 내분(內紛)

일부 작품 속에서는 악녀들의 연대가 지속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하거나 혹은 더 악하고 더 치밀한 쪽에 의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균열, 해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26) 한국고전문학편집위원회 편, 『콩쥐팍쥐』, 희망출판사, 1978. p.278.

『사씨남정기』에서 언니 납매의 꼬임에 빠져 사씨 부인의 옥가락지를 훔침으로 사씨부인을 모함한 데 가담했던 설매는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천성이 악하지 못했던 설매는 사부인의 아이 인아를 죽이라는 교씨의 명령을 차마 따르지 못하고 살려둔다. 설매는 지난 일을 기피 뉘우치며, 밤낮으로 마음을 썩이다가 유한림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한다. 하지만 교씨에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 후원 나무 아래서 목을 매고 만다. 설매의 죽음에는 자신의 악행에 대해 속죄하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시종일관 교씨를 도와 악행을 저지르던 납매마저도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주인 교씨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교씨의 내연남 동청은 시비 중 자색이 빼어난 이들을 가까이하였고, 이를 질투한 교씨는 납매도 못마땅하였으나 그녀의 공이 크므로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납매가 동청과 육체적 욕망을 불태우고, 드디어 그의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자, 교씨는 불타는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동청이 외지에 간 틈을 타서 모래 부대로 납매를 눌러 죽이고 만다. 그리고 동청에게는 병들어 죽었다는 거짓말로 둘러댄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집안의 식객 냉진과 다시 정을 통하고 동청이 사형을 당한 이후에는 아예 냉진의 아내가 되고, 이후로 남성 편력은 더욱 심해져 스스로 ‘칠량’으로 개명까지 하여, ‘낙양 최고의 창기’로 그 이름을 날리게 된다. 교씨는 정실 자리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서, 동시에 성적(性的)으로도 견잡을 수 없는 파탄의 길을 걷게 된다. 결국 아무도 옆에 남지 않고 홀로 된 교씨는 남편 유상서에 의해 ‘타살된 후 까막까치의 밥이 되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만다.

이처럼 정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악첩들은 주변의 악녀들과 연대하여 참소, 모함, 음행, 존속 살해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르지만 결국 실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그에 비해 현숙하고 아름다운 정처는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선한 이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대단원의 결말을 맞이한다. 그리고 정처의 승리는 단순히 첩을 이겼다는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최종적으로 깨진 가정을 복원시키고 가부장 사회를 공고하게 함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sup>27)</sup>

#### 나. 자발적 해체형 : 개과천선(改過遷善)

고전소설의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주제에 맞게 대부분의 악녀는 자신들의 악행에 걸맞은 결말을 맞이하였지만, 때로는 모종의 기회로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개과천선’을 통해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27) 김난주, 「한·일 쟁충형(爭寵型)서사의 비교 연구 - 주로 17세기 이후 근세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82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03, p.86.



명의 풍몽령의 『유세명언(喻世明言)』의 「장흥가가 진주적삼을 다시 찾다(蔣興哥重會珍珠衫)」에서 삼교아가 진대랑에게 정표(情表)로 준 집안의 가보 진주적삼으로 남편 장흥가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배신감에 치를 떨지만, 이윽고 자신의 장기간 부재로 인한 불찰임을 깨닫고는 삼교아를 친정으로 돌려보내 조용히 이혼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 설노파를 두들겨 패서 혼내주고, 두 하녀 청운과 난설은 멀리 팔아 버린다. 친정으로 돌아온 삼교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목을 매고자 한다.

“우리의 결혼생활이 내 실수로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아, 내가 남편과의 정을 이렇게 저 버리다니, 이제 살아도 의미 없는 인생, 차라리 깨끗하게 죽어 버리자.” 28)

그러나 부모의 만류로 실패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진사 오걸(吳傑)의 첩이 된다. 비록 강제로 이혼을 당했지만, 삼교아는 장흥가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우연히 전 남편 장흥가가 환난에 빠진 소식을 듣고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까지 한다. 이 두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된 오걸은 삼교아를 다시 전남편 장흥가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합쳐진다.

이러한 현상은 아내의 부정(不貞)에 대한 응정보다 남성으로서의 자존감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리고 비록 정조를 잃었다 할지라도 자결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한 참회의 마음으로 은혜를 갚고자 한 “개과천선형” 악녀에 대한 용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sup>29)</sup> 그러나 삼교아가 본처의 신분에서 첩의 신분으로 강등되어 재결합 할 수밖에 없는 결말은 그녀의 악행에 대한 어느 정도 처벌의 결과였다. 이는 ‘하늘의 이치가 어디 한 치의 어긋남이 있으랴’ 라는 마지막 쇠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었다.<sup>30)</sup>

『옥루몽』의 황소저, 모친 위씨도 자신들의 벽성선 살해 음모가 밝혀져 귀양살이를 가게 된다. 유배지의 초라한 오두막에서 황소저와 모친 위씨는 지독한 악몽을 꾸게 된다.

“그곳으로 가서 보니 큰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여 악취가 코를 찔렀다.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그 안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여자는

28) “一旦决绝，是我做的不是，负了丈夫恩情。便活在人间，料没有个好日，不如绕死，到得干净。”(馮夢龍, 『喻世明言』, 北方文藝出版社, 2016.)

29) 전은숙, 「明末清初 艷情小説의 “淫婦”형상과 문화심리」, 『중국어문학논집』, 제88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4.10, p.263.

30) 李想, 「善良美貌多情女 热烈奔放真性情——《蒋兴哥重会珍珠衫》女主人公王三巧艺术形象分析」, 『河南农业』, 第10期, 2017, p.54.

머리를 내밀고 팔을 뻗어 황소저를 보면서 울부짖었다. … ”첩 등은 부잣집 좋은 가문의 부귀한 여자들입니다. 평소 다른 죄는 없지만 투기하는 마음으로 집 안을 어지럽힌 죄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 “연왕 부인은 달아나지 마시오, 그대 또한 우리와 같은 부류요. 마땅히 이 같은 고초를 함께 당할 것이요.” 여인들은 더러운 것들을 움켜쥐고 던지면서 한꺼번에 쫓아 왔다.” 31)

질투로 유명했던 한나라 여후, 진나라 가충의 처 광씨 등의 역사적 인물들이 오물에 빠져서 고통 받고 있으며, 또한 자신을 ‘동류(同類)’로 칭하며 오물을 던지는 모습에 놀란 황소저는 ‘모골이 송연하여, 온몸에 땀을 흘리며 배개와 이불마저 적시게 되고’, 자신의 악행을 철저히 뉘우치게 된다,

“나는 부모님의 은덕으로 부귀한 가문에서 태어나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다가, 시집으로 들어간 뒤에는 부인으로서의 덕은 전혀 없고 교만한 마음만 품은 첩들을 모두 없애 버리고 나 혼자 남편의 은총을 누리려 했다. 이는 진실로 비루하고 천한 마음이다. … 내 몸을 닦고 내 도리를 지켜서 천지신명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32)

그리고 황소저가 자신의 투기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악몽을 꾸 이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 직전까지 이른다. 그러나 벽성선의 용서, 황소저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노력으로 황소저는 다시 양부로 돌아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모친 위씨도 딸 황소저 곁에서 더한 흥분을 꾀다. 자신의 모친 마씨와 백발노인에 의해 꾸지람을 듣고, ‘장작으로 두들겨 맞고’, 심지어 ‘배를 갈라 창자 세척과 뼈를 가는’ 극심한 고통과 충격적인 공포마저 겪는다. 그리고는 이후로는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뀐다. 황태후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던 태도는 ‘매번 일을 당하면 두려워 겁을 냈으며, 지난 일을 돌아볼 때면 봄날의 꿈처럼 아득하여 심약한’ 모습으로 바뀌고 만다. 첩을 질투한 본처들의 처절한 반성은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나아가 봉건적 가정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작자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sup>33)</sup>

이처럼 일부 악녀들이 가족의 일원으로 회복하는 가부장제의 용서와 관대함이 보이는 듯하나. 그녀들의 신분이 대개 첩이 아닌 정처라는 점, 왕족의 출신이라는 고귀한 신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분이 높은 여성들 혹은 본처들은 악행을 저지르다가

31) 남영로, 김풍기 옮김, 『옥루몽』2, 엑스북스, 2020, pp.498-500.

32) 남영로, 김풍기 옮김, 『옥루몽』2, 엑스북스, 2020, p.501.

33) 줄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꿈」, 『중국학』, 제53집, 대한중국학회, 2015.12, p.1

도 모종의 기회로 개과천선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지만, 반면에 첩, 하녀 등의 신분이 낮은 여성들의 악행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었다. 천한 신분의 여성들이 그 사회에 순응하지 못하고 욕망으로 몸부림치다가 결국 자신들의 욕망으로 내분되고, 처절하게 응징되고 있었다. 그녀들에게는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코가 잘리거나, 참수되거나 까막까치의 밥이 되는 비참하고 참혹한 결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부장 사회는 열악한 신분과 강력한 욕망으로 연대하여 신분 체제의 질서를 파괴한 악녀들에게는 개과천선과 인간성 회복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sup>34)</sup>

### 3. 나가며

이상으로 韓·中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악녀들의 연대의 동기와 전개,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은 호방한 대륙적 기질로 악녀들의 연대도 한층 대담하였고, 특히 성적(性的)인 방종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금병매(金瓶梅)』의 반금련과 춘매처럼 관능적인 악녀들이 뿜어내는 치명적인 유혹 못지않게 그 치밀함과 잔혹함도 강렬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악행에 왕노파, 설노파, 염노파와 같은 노파들이 활약함으로써, 노년의 하층 신분 여성들인 ‘삼고육파(三姑六婆)’에 대한 당시 가부장 사회의 혐오감과 부정적인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은 강력한 유교 질서의 영향으로 신분 차별의 족쇄는 악녀들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악녀들의 결말로도 이어져 봉건사회의 최하층 여성인 하녀에게는 ‘코와 귀를 베어버리는’ 신체적 훼손마저 자행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정처, 신분이 높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개과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결말마저 주고 있다. 이는 『옥루몽』의 하녀 춘월에 대한 처벌과 황소저와 그녀의 모친 위씨에 대한 용서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그녀들의 연대의 이면에는 사회 구조적으로 악녀들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사회, 신분사회의 수많은 부산물(副産物)인 처첩제도, 아들을 낳으므로 비로소 인정받았던 여성의 지위, 첩의 열악한 인권, 정처의 자식들에 비해서 열악한 후처와 첩들 자식의 권리, 주인의 도구로서 존재했던 하녀의 정체성 등, 이 모든 것을 도외시하고, 봉건적 윤리의식을 오로지 여성들에만 강요한

34) 김정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악녀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8, p.60.

비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록 잘못된 동기임을 자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녀들이 외친 욕구, 집착, 질투, 복수 등과 같은 정념(情念, passion)은 인간의 본성에 천착해 공동체 구성의 원리로 이해될 수 있는 홉스(Hobbes)적인 시도였다. 하늘의 이법(理法)이라고 치부하며 신분제와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던 시대에 악녀들이 과감한 연대를 통해 삶의 실상(實像)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녀들은 어쩌면 그 시대의 실증주의자들이자, 이단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녀들에게 쏟아진 비난과 화형(火刑)의 화목(火木)위에 함께 올려져야 할 제물은 어쩌면 전단적(專斷的)인 가부장제여야 하지 않았을까?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만중, 류준경 옮김,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남영로, 김풍기 옮김, 『옥루몽』, 엑스북스, 2020.  
 소소생, 강태권 역, 『금병매』, 문예춘추사, 2022.  
 시내암,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조, 『수호지』, 올재클래식스, 2015.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월인출판사, 2006.  
 풍몽룡, 김진곤 역, 『유세명언』, 민음사, 2020.  
 한국고전전문학편집위원회 편, 『콩쥐팍쥐』, 희망출판사, 1978.  
 蘭陵笑笑生, 戴鴻森 校點, 『金瓶梅詞話』, 人民文學出版社, 1992.  
 馮夢龍, 『喻世明言』, 北方文藝出版社, 2016.

### <논문>

- 김난주, 「한·일 쟁총형(爭寵型)서사의 비교 연구 - 주로 17세기 이후 근세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82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김도환, 「〈옥루몽〉의 악녀 서사」, 『우리문학연구』, 제47집, 우리문학회, 2015.  
 김선미, 「《三言》《二拍》의 婢女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9.  
 김재민, 「『금병매(金瓶梅)』 속 왕파(王婆)와 대안(玳安)의 인물 분석」, 『中國文化研究』, 제43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19.  
 김정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악녀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8.  
 송용인, 「중국 고전소설 속의 “삼고육파(三姑六婆)”」, 『중국문학연구』, 제34집, 한국중문학회, 2007.  
 이정미,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꿈」, 『중국학』, 제53집, 대한중국학회, 2015.  
 전은숙, 「明末清初 艷情小說의 “淫婦”형상과 문화심리」, 『중국어문학논집』, 제88집, 중국어문

학연구회, 2014.

滿建利, 「論《水滸傳》老年女性形象塑造」, 『鎮江高專學報』, 第33期, 2020.

徐長偉, 「論《金瓶梅》中的“王婆”形象」, 『隴東學院學報』, 第18卷 第4期, 2007.

李 想, 「善良美貌多情女 熱烈奔放真性情——《蔣興哥重會珍珠衫》女主人公王三巧藝術形象分析」, 『河南農業』, 第10期, 2017.

許璩梓, 「明代《三言》小說中的“三姑六婆”形象探究」, 『淮南師範學院學報』, 第64期, 201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惡女, 連帶, 韓·中, 古典文學, 比較文學				
	영문	Evil women, Coalition, Korean-Chinese, Ancient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div><div>The Coalition among Evil Women in Ancient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div><div>Lee Kyung-Mi</div><div><p>This article explores the coalition among evil women in ancient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They rebelled patriarchy by revealing their ‘sexual drive’, ‘craving for power’, ‘possessiveness’ and ‘worldly desires’ without moderation despite the ideas that women must be good wives, wise mothers, and virtuous beings. These ‘evil’ women chose to form a coalition as the last resort to accomplish their goals. While some were mere participants, some with intensifying evil committed felonies such as murder through the coalition and became formidable villainesses. Some women of high birth were forgiven if they repented in dust and ashes due to limitations of a class structure. Yet, patriarchal communities forbade any form of coalition in most cases and punished those involved with more stringent penalties which left their ends more tragic. These tragedies were the ultimate results of disregarding the maladies of patriarchy and the caste system accountable for the appearances of evil women and coercing women into being submissive and sacrificial.</p></div></div>						
저 자	이경미 / 李京美 / Lee Kyung-Mi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2.09.	심 사 일	2023.03.06.	게재확정일	2023.03.20.